



내가 왜 떴게?

맞아보고 싶은 사람 줄을 서시오

●**김연경, 등짝 스매싱 : ‘짜악!’**이었을까. ‘빠악!’이었을까. 여자 핸드볼대표팀 김은아의 이야기다. 27일 핸드볼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태국을 40-13으로 완파하고 선수촌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배구대표팀 김연경이 다가오더니 “금메달을 미리 축하한다”며 김은아의 등쪽에 시원하게 스매싱을 날렸다는 얘기가. 두 사람은 1988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김은아는 “살살 때린 거 같은데 너무 아팠다”라며 김연경에게 “너 앞으로 사람 때리지 마라. 큰일 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닌 게 아니라 김연경의 손바닥은 흥기. 제대로 맞으면 골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축구선수 MVP는 언제쯤?

●**日 수영 이케에, MVP 유력** : 일본의 이케에 리카코가 이번 아시안 게임 MVP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18세 여고생 수영천재 이케에는 무려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최다관왕이다. 1998년 신설된 MVP는 그동안 다섯 차례 시상됐고 이중 세 번이나 수영종목 선수가 탔다. 박태환(2006)도 그중 한 명이다. 걸린 메달 수가 많았으니 이해는 되지만 종목편중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팔랑 금메달 하나 걸린 축구는 몇 골이나 넣어야 MVP가 될 수 있을까.

여자모델이 럭비선수?

●**모델출신 여자럭비국가대표** : “럭비는 상남자들의 스포츠”라고? 노노! 여자들도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우리도 여자럭비대표팀을 출전시켰다. 대부분 170cm가 넘는 장신의 선수들이다. 이중 허경희(28)는 모델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2012년 케이블 채널의 슈퍼모델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종 15위 안에 들기도 했다. 그런데 원래는 육상선수였다. 체고와 체대를 나와 단거리 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모델로 전향했던 것. 모델 활동을 할 때는 아마도 ‘육상선수 출신 모델’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지금은 ‘모델출신 럭비선수’가 됐다. 한 번 더 직업을 바꾼다면 이름 앞 수식어가 두 배로 길어질 것이다.

오늘 운명의 한일전...키워드는 ‘포크볼’

일본 포크볼의 유혹, 참아야 이긴다

이용찬 “공인구, 포크볼에 최적화 돼”
유력한 일본선발 사타케 포크볼 강자
한국타자들 얼마나 잘 참느냐가 관건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 야구 대표팀 투수 중 이용찬(두산 베어스)은 가장 뛰어난 포크볼을 던진다. 145km~150km 빠른 강속구에 나차 큰 포크볼로 올 시즌 선발투수로 완벽하게 되돌아왔다. 이용찬은 28일 홍콩과의 조별리그 3차전 등판 후 “AG 공인구가 포크볼을 던지는데 있어 굉장히 좋은 감각을 느끼게 한다. 패스트볼은 약간 날린다는 느낌이다”며 “직구는 좀 더 놀라서 던져야 제대로 된 제구가 된다. 반대로 포크볼 등 변화구는 상당히 회전력도 좋고 잘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포크볼은 세계 야구에서 일본 야구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일본이 자랑하는 명투수 노모 히데오는 포크볼로 메이저리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용찬

일본에서 포크볼을 던지지 못하는 투수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국내에서는 부상 위험이 높다는 꼬리표가 따르는 구종이기도 하다. 송진우 한화 이글스 코치는 현역 은퇴 후 ‘애 일본 투수들은 포크볼을 오래도록 던지면서 팔꿈치 부상을 많이 당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연수를 받았다. 송 코치는 “일본 투수 중에서 포크볼을 검지와 중지가 아니라 중지와 약지에 끼고 던지는 선수도 봤다. 팔꿈치에 무리가 덜 가면서

나차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던지기 어려운 그림이다”고 말했다.

AG 야구 대표팀은 30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자카르타 GBK구장에서 절대 질 수 없는 한·일전(슈퍼라운드 1차전)을 치른다. 패하는 순간 사실상 결승 진출은 어려워진다. 이미 B조 예선에서 대만에 패해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2점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용찬의 느낌처럼 AG 공인구는 포크볼에 유리한 공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번 대회 공인구는 브렛(BRETT)사의 BR-100으로 일본 대표팀은 이 공을 공수해 평가전을 치른 후 자카르타에 입성했다.

일본투수들은 뛰어난 포크볼을 갖고 있다. 일본 투수들의 투구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역시 공에 대한 커맨드가 뛰어나고 포크볼 등 변화구가 좋더라. 일본 사람들은 자랑을 잘 하지는 않는데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일본

대표팀 관계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 투수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을 먼저 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일본 사람들에게서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그만큼 자신감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투수 중 선발 우완 사타케 가쓰토시는 조별예선에 등판하지 않고 한국전을 준비해왔다. 만 35세로 도요타자동차 에이스다. 사타케는 일본 AG 대표팀 명단 발표 직후부터 한국 전력분석 팀이 주목한 선수다. 키가 170cm가 되지 않는, 운동선수 특이 투수로는 매우 작아 프로에 가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포크볼과 절묘한 컨트롤을 갖고 있는 투수다. 포심 패스트볼도 140km 중반을 던진다. 사타케와 비슷한 체구와 유형의 투수는 KBO리그에 없다. 한국 타자들은 리그와 다른 스트라이크존을 놓고 위협적인 포크볼과 싸워야 한다. 낮고 정확하게 제구 되는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넓고 긴 스트라이크존을 활용하는 포크볼의 유혹을 이겨내야 초반 활발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대체선발 이정후 ‘대체불가 NO.1’ 성장

배탈볼구 완벽한 스윙·선구안
예선 라운드 3경기 타율 0.583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종목 선수들이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정도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선수촌에서 생활을 시작할 무렵 배앓이를 많이 했다.

자카르타 케미요란에 위치한 선수촌 앞에는 작은 강이 흐른다. 자카르타시는 대회 시작 전 선수촌에서 보이는 강 표면 전체를 거대한 부직포로 가렸다. 그 이유는 워낙 심하게 강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수질 정화가 되지 않아 미봉책으로 가리고 대회를 시작했다. 그만큼 건기를 관통하고 있는 자카르타의 물 사정은 좋지 않다.

야구 대표팀 막내 이정후(20·넥센 히어로즈)도 현재 컨디션이 좋지 않다. 배탈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다. 힘들고 치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스무 살 청년은 보여주고 있다.

이정후는 28일 조별리그 3차전 홍콩전 이 끝난 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있다. 하지만 그 덕에 오히려 힘이 빠져서 경쾌한 스윙을 하고 타격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웃었다. 괴로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덕에 가벼운 스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긍정의 힘이다.

이정후는 예선 3경기에서 12타수 7안타 2홈런 6타점, 타율 0.583으로 맹활약했다. 1-2로 패한 대만전에서도 1안타 1볼트로 리드오프로 역할을 다했다. 이번 AG의 가장 큰 성과가 국가대표 리드오프의 완벽한 세대교체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정후의 가장 큰 강점은 KBO리그와 다른 넓은 스트라이크존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몸쪽 낮은 코스의 공도 안타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스윙과 강한 정신력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정후는 “스트라이크존이 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혼돈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칠 수 있는 존을 평소와 때처럼 눈에 그리며 스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대체불가 대체선수!’ 이정후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막내이자 지각할류한 대체선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대체할 수 없다. 선배들이 고전하고 있는 넓은 스트라이크존도 극복해내고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뉴시스

외신도 주목한 정정당당 ‘태극 양궁’

김우진-이우석 명품승부에 박수
“병역 회피 NO” 스포츠맨십 감동

“한국 궁수는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다.”

미국 로이터통신은 29일(한국시간)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소식을 전하며 한국 양궁 대표팀의 ‘정정당당한 승부’에 주목했다. 매체는 하루 전 열린 양궁 남자 리커브 개인 결승전 결과를 보도하며 “승자 김우진(26·청주시청)이 팀 동료 이우석(21·국군체육부대)을 이긴 후에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우석(왼쪽)과 김우진

태평양 건너 외신이 AG 양궁 결승전에 주목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병역 혜택이 걸린 금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맞붙었기 때문이다.

축구 대표팀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의 AG 대표팀 합류는 외신이 한국 병역 혜택에 크게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타 종목 남자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에도 자연히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결승전에서 병역 혜택이 더 간절했던 선수는 이우석이었다. 김우진은 2010광저우AG에서 이미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경기 전 서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약속했다.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 김우진이 금메달, 이우석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매체는 “이우석은 이미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이번 결승전이 조기 전역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결국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다”고 설명하며 “승자 김우진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덧붙였다. 비슷한 상황으로 앞서 열린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구본길(29)과 오상욱(22·대전대)의 결승전에서도 구본길이 승리 후 기뻐하지 않았다. 오상욱은 병역 혜택 기회를 놓쳤지만 이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결국 혜택을 받게 됐다”고 했다.

소위 ‘곰수’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병역 혜택은 다른 국가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스포츠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선수들의 신념은 타국 미디어에서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